

건설기술관리 및 감리체계 선진화 지원사업

박형근(건설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으로 그 중심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건설업은 대외개방정책인 도이모이 정책(Doi Moi policy) 추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외환위기 등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전력, 교통, 상하수도, 통신 등 사회전반에 걸친 인프라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건설 산업이 낙후되어 있고,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토지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의 장기 임대와 다양한 외국계 기업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건설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품질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 또는 PM(Project Management : 프로젝트관리)기술을 가진 여러 전문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대부분 배제된 방식의 공사감독 체계보다는 정부의 감독 권한을 중심으로 기술적 관리·감독 체계를 지원하는 베트남형 공사감독 및 품질관리체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 감리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소 감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베트남 감리관련 건설부 공무원 초청 기술연수를 기획하여 베트남의 품질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감리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내 현황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발주물량 감소를 초래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및 CM(감리 포함) 발주물량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CM)와 감리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였으나, CM의 발전은 정체되고 감리와의 불협화음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국내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단순시공 중심 수주에 머물러 있고, 몇몇 대기업의 해외공사에서의 발생 손실액에 의한 어닝쇼크는 국내 경기회복의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분야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단순시공 위주의 수주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몇몇 엔지니어링 기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투자 노력 부족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유가하락에 따른 전통적인 수주시장으로서의 중동지역 발주물량 감소로 해외건설 수주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의 통합경제권 실현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의 엔지니어링 분야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감리체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건설분야 종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공사 수주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리 및 품질관리 분야에 대한 기술 홍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현황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앞세워 동남아 건설시장을 공략하였기 때문에 후발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해 시장 확보가 용이했으며, 수주 경쟁력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시공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서비스, 개발, 자금조달 패키지 건설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 시장 확보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감리 또는 CM 등 소프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감리감독체계와, 쉽게 현지화할 수 있는 건설기술 관리기법을 기술이전 할 수 있다면, 투자 규모 및 기간에 비해 아직 현지화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일본의 제도 및 시스템을 극복하고 현지 기술 수준과 융합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기술관리 및 품질확보체계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VE(Value Engineering),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건물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건설 붐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쟁의 영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가 육성되지 못하였고,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건설물량 증가에 대응한 철저한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계 정비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나라 감리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장을 선점한 일본의 기업은 기술전수 등에 소극적인 면이 있고,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우수성과 국민의 근면성, 열정 등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으로부터의 다양한 관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진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과 토목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건설 사업관리 기술 영역확장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사업 개척이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도 근접하고 있어, 현장인력 배치 및 출장 등 지속적인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업 목표 및 추진 내용

본 사업은 베트남 건설품질 및 감리관련 담당 공무원의 기술연수를 통하여 베트남의 건설기술관리 및 감리체계 선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베트남 건설시장의 품질확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제적 투자이며, 사업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중점항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 제도 소개
- ICT 첨단기술 및 BIM기반의 4D공정관리 시스템을 접목한 건설사업관리
- 우리나라의 품질관리체계 및 토목분야 품질시험기준과 품질시험 시의 문제점
- 토목관련 주요시험 및 건축분야 품질시험(난연, 불연, 준불연), 친환경 시험, 단열재시험
- 환경관리
-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 건축공사 시공단계 감리업무 절차 소개
- 감리업무 수행사례 소개

사업 추진체계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건설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CM매뉴얼을 소개하고, 실무 경험으로 축적한 사업관리기술 전수, BIM설계와 연동되는 기타 시스템 소개, BIM을 활용한 사업관리에 대하여 소개한다.

중기적으로는 베트남의 건설기술관리 및 감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베트남 현지에 특화된 사업관리 업무 매뉴얼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이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사업관리 능력 및 업무수행체계 등을 고려하며,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국내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담당자의 교육훈련, 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체계 정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의(부처 간 MOU 등)가 전제가 되며, 각 분야별 전문기업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베트남 현지 건설사업에 기술관리 및 감리체계를 시범 적용하여 우리나라 감리기업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공동 참여로 실무적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품질관리 전문영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연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결과

베트남 건설부 품질 국가검사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감리 및 품질관리 기술연수와 현장견학을 수행하였다. 현장견학은 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관리 현장, 신세계 고양삼송 복합쇼핑몰 건설사업관리 현장, 돈의문 재구역 재개발 건설사업관리 현장 등 3개소이다.

기술연수에 대한 베트남 연수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감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다. 향후 양국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번 연수단으로부터 베트남 현지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감리뿐만 아니라 품질확인을 위한 품질시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BIM 등 다양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지속적인 관계 증진과 지원으로 참가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을 위한 노력에 건설연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성 사업이 아닌 현지 대사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진출기업과의 협업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현지시장 파악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현지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트남 건설부와 협의가 필요하나, 베트남 현지교육 투어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협조체계 강화, 베트남 건설부, 국토교통부, 건설연 간 3자 업무협약, 또는 베트남 건설부 품질국가검사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건설연 건설산업혁신센터(건설정책연구소) 간 업무협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기술연수 광경



[그림 2] 현장견학 모습

맺음말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양국 연락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여 베트남 전쟁으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2001년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한하여 한국-베트남 2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기존 경제 위주의 관계에서 벗어나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예술, 언론, 학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미이며, 그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발전을 거듭하였다.

베트남은 GDP대비 20%에 육박하는 건설시장으로, 도시화 비율이 낮고,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직접투자가 많고, 2011년에는 외국인 투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역수준이 높으나, 건설분야는 오래 전부터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진출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고부가가치 기술 수출에 있어서는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공무원의 권한이 강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질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그 중심은 정부의 권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리기술연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감리기업의 적극적인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투자이다. 이번 기술연수와 같이 기술적 체계를 수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실시한 교육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술연수의 계속, 베트남 현지교육 등 실시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검토와 내실화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